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제남주, 방설영*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Concept of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Students on Self Leadership

Nam Joo Je, Sul Yeong Bang*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Changwon, Korea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K도 C시 소재 C대학교 간호학과 3.4학년 165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49.9%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 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중요 요인이었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일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전공이수 체계상의 문제점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을 강화시켜 나갈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concept of nursing profession according to degree of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5 nursing students in 3rd & 4th grad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academic achievement,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concept of nursing professio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ffecting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performance on self-leadership showed that they were explained by 49.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is suggests that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n be improved effectively by promot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lso in reality, there are many difficulties such as the problems in the system of the majors, but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continuous education program to strengthen the self-leadership for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by seeking various methods.

Keywords : Critical Thinking, Nursing, Performance, Profession, Self-concept, Self-leadership

*Corresponding Author : Sul Yeong Bang(Changshin Univ.)

Tel: +82-55-250-3175 email: cui_bono@naver.com

Received September 6, 2018

Revised (1st September 28, 2018, 2nd December 5,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간호 현장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자기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간호사를 필요로 하므로 모든 간호사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1]. 의학기술과 지식정보의 발달에 따라 대상자의 기대와 요구 수준의 향상 및 복잡한 간호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주도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전문인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대처 능력과 간호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1,2].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을 지닌 리더십으로 스스로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문직 간호사의 기본적인 리더십 자질로 적당하다고 판단된다[2,3].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과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일상생활에서 하고자 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재적 탐구 과정이다[4].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셀프리더십은 대학생 시기에 함양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5]. 또한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은 개인의 문제해결과정이나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결과를 이끌어내게 된다[6].

비판적인 사고성향은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과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이다[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인 사고성향은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분석하고 종합 및 추론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8].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진 학생일수록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과 정보를 찾아 학습자 스스로 주도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9].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5].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간호술기를 임상현장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간호대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상황

에 맞는 적절한 실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로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임상수행능력은 이론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기술[11]으로써 의사결정 및 비판적 사고가 그 과정에 통합되어야 하며, 간호사의 필수적인 자질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은 간호교육에서 중요하다 볼 수 있다. 또한 간호전문직에 대한 확고한 자아개념의 정립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12],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간호가치관과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야 한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지니고 있는 느낌과 견해를 의미하며[13],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통해 개인적 만족은 물론, 대중들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간호가치관이나 전문직관이 확고히 다져지기도 전에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14], 이는 간호사가 된 후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갈등과 전문직에 대한 자긍심 결여를 초래할 수도 있다[15]. 그로 인해 간호대학생이 병원에 취업한 후 조기이직률이 33.6%로 간호사 평균 이직률 1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16]. 그러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간호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직 간호사로 가는 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형성에는 임상현장 적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다[17]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을 통하여 성취해야 할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성을 지니고 스스로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확인한다.
- 5)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 소재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인 편의표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선행연구[3,5,6]를 참고로 G*power.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는 회귀분석의 중간 수준인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 (1- β) 95%, 예측변수는 9개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156명이었으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72명을 표집하였다. 연구 제외 대상자는 없었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모든 학생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으나 자료 처리과정에서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16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는 일반적 특성과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학년, 성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 만족도 등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18]가 개발하고 Kim[19]이 수정, 보완한 18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자기 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의 총 1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18]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Kim[19]의 연구에서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3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학습자를 대상으로 Yoon[20]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총 27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4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는 Lee, Kim, Yoo, Hur, Kim과 Lim[21]이 개발하고 Choi[22]가 수정 보완한 간호학생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의 총 4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21]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Choi[22]의 연구에서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5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는 Arthur[13]가 개발한 간

호 전문직 자아개념도구(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Sohng과 Noh[15]가 변안한 것을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Seo[2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이 중 7문항은 부정적 문항(9,12,13, 18,21,23,25)이며,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hng과 Noh[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Seo[23]의 연구에서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CSIRB-R2017007)을 받고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효과 및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한 대상자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15분이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21.0 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 3)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59명(96.4%), 남성이 6명(3.6%)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대상자의 학력은 3학년 95명(57.6.2%), 4학년 70명(42.4%)이었다. 학업 성적은 평점 2.5 이하 4명(2.4%), 평점 2.5 이상~3.0 미만 13명(7.9%), 평점 3.0 이상~3.5 미만 63명(38.2%), 평점 3.5 이상~4.0 미만 75명(45.4%), 평점 4.0 이상 10명(6.1%)이었다. 입학동기는 학교성적에 따라 10명(6.1%), 타인의 권유 42명(25.4%), 봉사정신 2명(1.2%), 간호사에 대한 호감 65명(39.4%), 고용안정 46명(27.9%)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매우 나쁨 3명(1.8%), 나쁨 17명(10.3%), 보통 83명(50.3%), 좋음 48명(29.1%), 매우 좋음 14명(8.5%)이었다<표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65)

Variables	Categories	n(%)	M±SD
Gender	Female	159(96.4%)	
	Male	6(3.6%)	
Education	Junior	95(57.6%)	
	Senior	70(42.4%)	
Academic score	>2.5	4(2.4%)	
	≤2.5 - <3.0	13(7.9%)	
	≤3.0 - <3.5	63(38.2%)	
	≤3.5 - <4.0	75(45.4%)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Academic score	10(6.1%)	
	Recommendation	42(25.4%)	
	Spirit of service	2(1.2%)	
	Good feeling on nurse	65(39.4%)	
	Job security	46(27.9%)	
Major satisfaction	Very bad	3(1.8%)	3.32±0.84
	Bad	17(10.3%)	
	Moderate	83(50.3%)	
	Good	48(29.1%)	
	Very good	14(8.5%)	

3.2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

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70±0.14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54±0.36점,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60±0.41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2.78±0.31점으로 나타났다<표 2>.

Table 2.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Degrees of Subjects (N=165)

Variables	Range	Mean±SD	Min	Max
Self-Leadership	1-5	3.70±0.41	2.67	5.00
Critical thinking	1-5	3.54±0.36	2.15	4.85
Clinical performance	1-5	3.60±0.41	2.47	5.00
PSCN	1-4	2.78±0.31	1.74	3.70

PSCN: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셀프리더십은 하위영역 중 자기보상이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리허설 3.84점, 자기기대 3.73점, 목표설정 3.73점, 자기비판 3.50점, 건설적 사고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은 객관성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공정성 3.78점, 건전한 회의성 3.59점, 자신감 3.49점, 지적열정/호기심 3.48, 체계성 3.36점, 신중성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의사소통이 3.63으로 가장 높

았고, 전문직 발전 3.62점, 간호과정 3.60점, 간호기술 3.60점, 간호교육/협력관계 3.59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에는 기술이 2.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융통성 2.93점, 전문직 실무 능력 2.86점, 의사소통 2.76점, 지도력 2.72점, 만족감 2.58점 순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인 경우 학년이 높은 경우($t=2.003, p=.047$),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F=3.419, p=.010$), 입학동기에 따라($F=3.770, p=.006$),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F=6.706, p<.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입학동기($F=3.664, p=.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임상수행능력은 학력이 높을 경우($t=2.415,$

Table 3.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5)

Variables	Categories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PSCN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Gender	Female	3.70±0.40	0.721	3.54±0.37	0.607	3.60±0.41	0.137	2.78±0.30	0.389
	Male	3.58±0.59	(.472)	3.45±0.21	(.545)	3.58±0.42	(.891)	2.73±0.44	(.698)
Education	Junior	3.64±0.46	-2.003	3.51±0.39	-1.183	3.53±0.39	-2.415	2.75±0.33	-1.162
	Senior	3.77±0.32	(.047)	3.58±0.46	(.239)	3.69±0.43	(.017)	2.81±0.27	(.217)
Academic score	>2.5	3.05±0.23 ^a	3.419 (.010)	3.12±0.19	2.006 (.096)	2.97±0.40 ^a	4.909 (.001)	2.25±0.45 ^a	3.375 (.011)
	≤2.5 - <3.0	3.80±0.43 ^b		3.67±0.35		3.93±0.60 ^b		2.77±0.33 ^b	
	≤3.0 - <3.5	3.65±0.39 ^c		3.51±0.41		3.57±0.37 ^c		2.77±0.29 ^c	
	≤3.5 - <4.0	3.74±0.40 ^d		3.57±0.32		3.61±0.35 ^d		2.81±0.29 ^d	
≤4.0	3.81±0.41 ^e	a<b,d,e	3.55±0.35		3.53±0.52 ^e	a<b	2.81±0.27 ^e	a<c,d,e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Academic score	4.02±0.41 ^a	3.770 (.006)	3.88±0.42 ^a	3.664 (.007)	3.54±0.39	0.967 (.427)	2.90±0.28 ^a	3.737 (.006)
	Recommendation	3.65±0.37 ^b		3.51±0.37 ^b		3.58±0.43		2.73±0.32 ^b	
	Spirit of service	3.72±0.31 ^c		3.61±0.34 ^c		3.71±0.31		2.83±0.78 ^c	
	Good feeling on nurse	3.78±0.42 ^d		3.58±0.38 ^d		3.67±0.44		2.87±0.28 ^d	
	Job security	3.56±0.39 ^e		a>e		3.43±0.26 ^e		a>e	
Major satisfaction	Very bad	3.29±0.50 ^a	6.706 (<.001)	3.32±0.41	1.833 (.125)	3.31±0.25	3.410 (.010)	2.40±0.22 ^a	10.140 (<.001)
	Bad	3.71±0.48 ^b		3.56±0.53		3.51±0.53		2.58±0.36 ^b	
	Moderate	3.59±0.40 ^c		3.49±0.37		3.52±0.36		2.71±0.28 ^c	
	Good	3.80±0.33 ^d		3.59±0.30		3.71±0.42		2.91±0.26 ^d	
	Very good	4.08±0.36 ^e		a<e c<e		3.72±0.19			

PSCN: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p=.017$),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F=4.909, p=.001$),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F=3.410, p=.010$)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F=3.375, p=.011$), 입학동기에 따라($F=3.737, p=.006$),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F=10.140, p<.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N=165)

	Sel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 ance	PSCN
	<i>r(p)</i>			
Self- Leadership	1			
Critical thinking	0.60 (<0.01)	1		
Clinical performance	0.44 (<0.01)	0.51 (<0.01)	1	
PSCN	0.49 (<0.01)	0.36 (<0.01)	0.51 (<0.01)	1

PSCN: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60, p<.001$), 임상수행능력과도 순상관관계를 보였고($r=0.44, p<.001$), 또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도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0.49, p<.001$).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과 순상관관계를 보였

으며($r=0.51, p<.00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도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36, p<.001$),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51, p<.001$) <표 4>.

3.5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셀프리더십에 유의하게 차이가 났던 학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까지 총 7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Stepwise) 방식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는 명목적으로 이들 변수를 하나의 범주를 1, 나머지 범주를 0으로 입력하여 더미화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58-.93, VIF 1.07-1.71로 나타나, 공차 한계가 0.1이상, 분산팽창지수가 10 이상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의 경우 $d=1.981$ 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합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R^2 값이 49.9%를 나타내었으며,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beta =.424, p<.00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beta=.206, p=.004$), 전공만족도(보통)($\beta=-.137, p=.030$)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중요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Leadership

(N=165)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07	0.31		3.42	.001
Major satisfaction(Very good)	0.15	0.09	.106	1.73	.085
Academic score(>2.5)	-0.25	0.16	-.093	-1.54	.124
Major satisfaction(Moderate)	-0.11	0.05	-.137	-2.19	.030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Academic score)	0.14	0.10	.083	1.37	.170
Major satisfaction(Very bad)	-0.22	0.18	-.072	-1.22	.221
Critical thinking	0.48	0.07	.424	6.08	<.001
Clinical performance	0.05	0.07	.056	0.75	.451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0.27	0.09	.206	2.92	.004

$R^2=.499, Adj. R^2=.473, F=19.395, p<.001$

4. 논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이 좋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입학 동기는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년, 전공 지원동기, 학업성적, 전공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1,2,9,24].

선행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4학년이 3학년보다 셀프리더십이 높는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생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25]. 또한 Mans와 Sims[26]는 셀프리더십이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발전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학생활을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교육활동과 학습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평균 3.70점이었으며, 이는 Kang과 Kim[2]의 3.73점, Park과 Han[9]의 3.64점, Kim, Kwon과 Lee[27]의 3.58점, Dong과 Choi[28]의 3.63점과 같이 평균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Ryu와 Cho[1]의 3.32점, Park과 Chae[4]의 3.34점, Park[25]의 3.44점, Jang과 Kim[3]의 간호사 대상 3.37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를 포함하여[1]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자율성, 주도성 및 열정을 동반하게 된다[2,3,25]. Ju[7]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하였고, 셀프리더십을 통해 길러진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잘 하여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1,2]. 또한 셀

프리더십이 높은 간호사가 인간관계, 의사소통, 창의적 행동, 간호서비스에 있어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며[29],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6], 간호교육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의 함양은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에는 자기보상이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리허설 3.84점, 자기기대 3.73점, 목표설정 3.73점, 자기비판 3.50점, 건설적 사고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보상 점수가 가장 높고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Park과 Han[9], Dong과 Choi[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자기 스스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상을 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동기부여 하는 자기보상의 행위전략이 강함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간호사로서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는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자질로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사료된다. 반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을 징계하며 비판을 가하는 자기비판의 행위전략과 효과적인 사고와 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 패턴의 인지 전략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Park과 Chae[4]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평균 3.34점에서 3.93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할 때 자신을 징계하며 비판하는 행위전략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분석하는 긍정적 사고 패턴을 훈련하고, 강점으로 부각된 자기보상의 행위전략을 이용하여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입학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학과 선택 동기에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9,27,30,31,32]들과 유사한 결과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54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과 Kim[2]의 3.70점, Ju[7]의 3.50점, Park 등[10]의 3.44점, Kim, Kwon과 Lee[27]의 3.56점, Kim[30]의 3.55점, Kim[31]의 3.59점과 같이 중간보다 높은 유사한 결과였으나, Park과 Han[9]의 연구에서는 3.14점을 보여 선행연구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다른 연구들이 간

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Park과 Han[9]의 연구가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이나 전공에 대한 성숙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의 성향이며[16], 간호교육성과의 중요지표로 사실 혹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으로 간호 실무에서 전문직 책임과 직결된 간호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24]. 특히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 핵심 요소로서[3] 창의적 사고 및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 발견, 이해 및 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5]. 이에 Lee와 Jang[24]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무에서 복잡한 대상자 간호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수적임을 역설한 바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은 객관성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공정성 3.78점, 건전한 회의성 3.59점, 자신감 3.49점, 지적열정/호기심 3.48, 체계성 3.36점, 신중성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에서 객관성 점수가 가장 높고 체계성과 신중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Kim[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Kim[30]의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에서 지적열정/호기심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체계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항목 중 체계성이 낮은 이유는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수방법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31]. 그러므로 주입식의 교수자 중심 교육방법에서 학습자들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주도하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학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Kim[31]의 연구에서도 연령, 학과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Park과 Han[9]의 연구에서도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임상수행능력은 3.60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Ju[7]의 3.39점, Park과 Han[9]의 3.55점, Dong과

Choi[28]의 3.80점, Kim[31]의 3.61점, Park, Jeon, Jang과 Kim[32]의 3.3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Seo[23]의 연구결과 2.6점으로 임상수행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이는 Seo[23]는 전문대학 2, 3학년생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실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32].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은 대인관계/의사소통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발전 3.62점, 간호과정 3.60점, 간호기술 3.60점, 간호교육/협력관계 3.5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im [3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Dong과 Choi[28]의 연구에서는 간호교육/협력관계 3.84점, 전문직 발전 3.7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하위영역별로 원인을 파악하고 교과과정과 학습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 [9,31,33]와 동일한 결과이지만 성별과 학년에는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배움에 있어 더 적극일 것이므로 간호학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 및 간호에 대한 긍지가 더 향상되어 그에 따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더 강할 것이라 여겨진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2.78점으로 중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Kang과 Kim[2]의 2.81점, Ju[7]의 2.70점, Dong과 Choi[28]의 2.78점, Kim[30]의 2.81점, Kim과 Kim[33]의 2.85점, Kang과 Lee[34]의 2.76점과 유사한 결과였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에는 기술이 2.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융통성 2.93점, 전문직 실무 능력 2.86점, 의사소통 2.76점, 지도력 2.72점, 만족감 2.5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기술영역이 높은 점수를 보였던 것[28,33]과 만족감과 지도력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28,32,33,34]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긍지가 향상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으면 간호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13]. 또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교육과

정을 통해 발달되므로[15] 간호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을 형성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35]. 그러므로 간호교육을 통하여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순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셀프리더십과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셀프리더십도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Jang과 Kim[3]은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만족이었고, Park과 Han[9]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 능력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31]의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이 비판적 사고성향이었고, Park과 Han[9]의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에 실습학기, 전공만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선행연구들과 같이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2,7,9,11,27],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순상관관계를 보였다[14,30].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9,28,32]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9,27,28]. 이상의 결과를 통해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자율성, 주도성 및 열정을 동반하므로[2]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 발견, 이해 및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무의 복잡한 간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셀프리더십에 유의하게 차이가 났던 학

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49.9%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42.4%의 설명력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강화하면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켜 양질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성찰을 통해 도전하는 셀프리더십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6,28,35]. 셀프리더십의 경우 유능한 리더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셀프리더십은 학습을 통해 획득 가능한 것이므로[4,26], 현실적으로 전공이수 체계상의 문제점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을 강화시켜 나갈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C시 소재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165명이었으며,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49.9%의 설명력을 보여,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현장실습에 임하기 전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을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임하도록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2.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용을 제언한다.
3. 후속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의 확대 표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자가보고를 통한 연구와 병행하여 셀프리더십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위해 면접법과 사례연구의 병행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J.H.Ryu, J.H.Cho, "Influencing of Resilience and InNovative organization cultur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2, pp.525-534, 2018.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2.79>
- [2] H.S.Kang, Y.Y.Kim,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5 pp.617-625,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5.617>
- [3] J.I.Kim,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253-262,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5.253>
- [4] E.H.Park, Y.R.Chae,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Reinforcement Program for Hospita lNurse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20, No.2, pp.132-140,2018. DOI: <https://doi.org/10.7586/jkbns.2018.20.2.132>
- [5] K.H.Kim, E.H.Hwang,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436-44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436>
- [6] M.S.Kim,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2, pp.184-193, 2017.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2.184>
- [7] H.J.Ju,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8, pp.213-224,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8.213>
- [8] S.A.Ya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6, No.4, pp.389-398, 2010.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4.389>
- [9] H.S.Park, J.Y.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Vol.26, No.3, pp.695-706, 2015. DOI: <https://doi.org/10.7465/jkdi.2015.26.3.695>
- [10] J.W.Park, C.J.Kim, Y.S.Kim, M.S.Yoo, H.R.Yoo, S. M.Chae,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leadership on crit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24, No.3, pp.223-231, 2012. DOI: <https://doi.org/10.3946/kjme.2012.24.3.223>
- [11] C. Barret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7, No.2, pp.364-371, 1998.
- [12] M.S.Kim,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2, pp.159-167,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159>
- [13] D.Arthur,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15, No.5, pp.328-335, 1995.
- [14] I.S.Park, R.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pp.105-117, 2013.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4.105>
- [15] K.Y.Sohng, C.H. 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6, No.1, pp.94-106, 1996.
- [16] B.H.Kim, B.Y.Chung, J.K.Kim, A.Y.Lee, S.Y.Hwang, J.A.Cho, J.A.Kim,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5, No.6, pp. 701-711, 2013.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2.24.6.701>
- [17] E.S. Do, Y. S. Seo,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1, pp.283-291, 2014.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4.21.3.283>
- [18] C.C.Manz,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 [19] H.S.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2002.

- [20] J.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04.
- [21] W.H.Lee, C.J.Kim, J.S.Yoo, H.K.Hur, K.S.Kim, S.M.Lim,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eonsei Nursing, Vol.13, pp.17-29, 1990.
- [22] M.S.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23] W.H.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7.
- [24] Jia.Lee, M.H.Jang "The Influences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Communication Skills, Leadership, and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124-133, 2017.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2.124>
- [25] H.J.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27>
- [26] C.C.Manz, H.P.Smis,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Vol.19, pp.18-35, 1991.
- [27] J.H.Kim, K.J.Kwon, S.H.Le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4, pp. 295-307,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4.295>
- [28] H.J.Dong, M.S.Choi,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3 No.4, pp.373-382, 2016.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6.23.4.373>
- [29] H.K.Kim,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 communication skills, creative behaviors and nursing services on self-leadership among nurses in hospital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3, No.1, pp.25-36, 2004.
- [30] J.I.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9 pp.6053-6060,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9.6053>
- [31] M.O.Kim,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6, pp.609-617,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6.609>
- [32] N.R.Park, Y.R.Jeon, E.S.Jang, Y.Y.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Diagnostics, Vol.20, No.1, pp.27-36, 2016.
- [33] N.H.Kim, K.W.Kim, "Self-Efficac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5, No.4 pp.41-51, 2011.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1.5.4.041>
- [34] M.A.Kang, S.K.Lee,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4, pp.452-461, 201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4.452>
- [35] M.K.Jang, H.Y.Kim,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2, pp.51-59,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51>

제 남 주(Nam Joo Je)

[정회원]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2016년 8월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9월 ~ 2017년 2월 :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수태 전 관리, 여성 건강, 생명윤리, 치매, 호스피스

방 설 영(Sul Yeong Bang)

[정회원]



- 2000년 8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생명윤리, 간호 관리